

폭염에 쉴 곳 없는 노숙인들...“갈 곳이 없다”

버스터미널·지하철역 등 돌며 기약 없는 떠돌이 생활 전년비 증가...현장보호인력 확충·광역지원체계 절실

“잠깐이라도 건물에 들어가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은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망설여져요.”

지난 9일 오후 8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모씨(60)는 광장 의자에 홀로 앉아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백지선 상담요원이 다가가 얼음물과 생수 등이 담긴 ‘혹서기 보호키트’를 건네자 손씨는 말없이 물부터 들이켰다.

전북 익산이 고향인 손씨는 지난 5년간 익산 일대를 떠돌다 지난달부터 광천동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선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지인과 함께 요식업에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까지는 철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워졌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잠자리다.

손씨는 “광주터미널은 24시간 문을 열지만 대합실에 앉아 있으면 경비원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쉰다. 노숙 생활을 오래했지만 올해처럼 더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조금만 걸어도 옷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고 하소연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세탁하며 더위를 식히는 것도 일상이 됐다.



백지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이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4가에서 만난 거리 노숙인의 건강 및 안부상태를 확인하며 센터 입소를 권유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다른 거리 노숙인들

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 상담요원의 보호활동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거리 곳곳을 돌며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와 이온음료 등을 전달했다. 이후 다른 상담요원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노숙인 2명의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입소 부담도

커진다.

백 상담요원은 “센터에서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주·야간 두 차례 현장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보호 사업과 쪽방 지원사업까지 함께 운영하면 서 업무 부담이 커졌다. 야간에는 현장 보호활동 인력 2명과 센터 상담 인력 1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 확충을 호소했다.

거리 노숙인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집계한 광주권역 거리 노숙인은 2024년 18명. 지난해 17명이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25명으로 늘었다.

센터는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노숙인이 주로 머무는 지역을 찾아 ‘노숙인 혹서기 집중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와 영양바, 이온음료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물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중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은 “전남광주가 하나로 통합된 만큼 전남 권역에도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전남권역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주민에 더 가까이...남구 민원실 달라진다

구청·1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주민들의 민원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행복 민원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청 종합민원실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8곳 민원실 바닥에 안내 유도선을 설치해 민원 창구와 주요 편의시설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처음 방문하는 주민이나 고령의 민원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행정 봉투에 구청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QR코드를 도입하고, 무인민원발급

기 이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남구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행정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약자를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에 지팡이 및 보행 보조기구 거치대를 설치해 민원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실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접하는 공간인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시량의 배식봉사 1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학생교육수당 ‘부정 사용’ 관리 강화한다

교육청 상시 모니터링...위반 시 환수·지급 제한

광주특별시교육청은 10일 학생교육수당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생교육수당은 2024년 옛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육복지사업이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예체는 학원과 사점·문구점, 문화·체육시설 등 교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사

용할 수 있다.

광주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복지사업인 ‘꿈드림!’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우선 ‘학생교육수당’ 상시 모니터링단’과 부당 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용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매파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학생교육수당 관련 글도

모니터링해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당 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지급 제한, 해당 가맹점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금융 지식과 학생교육수당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도 안내자료와 워크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49	달출	03:35
해질	19:26	달입	18:34



광주		25~34
목포		25~32
여수		24~32
순천		24~32
구례		22~32
광주		24~32
개남		24~32
임도		25~31
흑산도		25~30
진남		23~31
고흥		23~31
진도		24~32

목포	밀물 (고)	00:51 / 12:47
	썰물 (저)	06:26 / 18:20
여수	밀물 (고)	07:54 / 20:36
	썰물 (저)	02:02 / 13:56

용접 부주의...선박 ‘화물’

마네편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목포시 조

선소에서 폐선박 해체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10일 전남광주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1분 목포시 연산동 한 조선소에서 선박 화재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5대와 소방대원 7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7분만인 오전 8시58분 불을 진압하는 데 성공.

다행히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화재 발생 당시 3400여 규모의 폐선박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도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

소방 관계자는 “용접 작업은 작은 불티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화기작업 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작업 중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작업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잔불 여부를 확인하는 화재 감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

이훈기 기자 leek2123@

9년만 광주 시내버스 개편...“생활 속 불편 개선을”

용산·선교지구 등 노선 확대...도시철도 연계 필요

급행·집중배차 등 개선 요구...정류장 명칭 변경도

9년 만에 추진되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용산·선교지구 등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역에는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긴 배차 간격, 회차지 승차 문제, 정류장 명칭 등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잇따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공청회’를 열고 동구 지역 노선 개편안을 설명한 뒤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지에 광주특별시 동구의장과 김영선 광주특별시 교통본부장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

다.

공청회는 지역별 노선 개편안 설명에 이어 주민 질의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동구 개편안은 조선대를 비롯해 계림초교, 산수동, 용산·선교지구 등 생활권 변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보강하고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학생들의 통학 수요가 큰 조선대와 연계 강화를 위해 4개 노선을 확충하고 점단·수원·운남·월곡지구와 풍암·금호·상무지구 등을 연결했다. 계림

초교와 용산·선교지구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선 만큼 신규 주거지의 교통 수요를 반영해 노선을 추가하고 도시철도와의 환승 연계도 강화한다.

신규 주거지 주민들은 노선 개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용산지구 한 주민은 “남구 진월동 학교와 공동 학군으로 지정되면서 학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노선 개편을 계기로 동구와 남구를 잇는 실질적인 교통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신규 노선 확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긴 배차 간격과 정류장 이용 불편, 요금 문제 등 일상적인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원2동 주민 이경순씨는 “228번과 152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30~35분 정도로 길어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며 “특히 방학 기간에는 배차 간격이 더 길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정류장 명칭을 실 생활권과 이용 시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씨는 “남계촌 버스정류장 명칭도 지난해 한중대학교와 지한유치원,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등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

는 시설을 반영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회차지에서 버스가 승객을 태우지 않는 문제도 안전과 직결된 생활 불편으로 지적됐다.

월남동 한 주민은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월남동에서 회차하지만 시내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주민마을이 사실상 출발지점인데도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1분 정도라도 정차한 뒤 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와 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내버스 증차 등 변화한 광주권 이동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